제목 : 미정

주제 :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세워 주체성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자.

<여주>정은.(여자) 20대 초반 대학생. 항상 바르게 살고 남에게 밉보이지 말라는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면서 남을 의식하는 경향이 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산다.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 얌전하고 조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남에게 미움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와 마음 속으로 생각 할 때는 얌전하지 않으며 화를 낼 줄 알고 신경질도 낸다. 태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조금씩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남주>태수.(남자) 20대 초반 대학생1. 머리도 기르고 싶은 대로 기르고 하고 싶은 거 다하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 의도치 않았지만 정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다. (머리 긴것은 가발로 대처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독특한 복장으로 변경될 예정.)

민호.(남자) 20대 대학생2. 정은의 소개팅 남. 부자고 허세에 가득 차 있다. 머리에 왁스를 많이 바르고 안경을 씀.

발단

법학과 대학생인 정은이 다른 학교 법학과 대학생인 민호와 소개팅을 한다. 민호는 일은 남자가 잘하면 되니까 먼 미래지만 만약에 결혼하면 집안일과 육아와 일을 모두 잘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아내 이상향을 이야기한다. 또 민호는 차가 있냐고 물어보고 정은이 차 없다고 하자 민호가 허세를 부리며 자기가 차 한번 태워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민호는 정은의 짜증을 돋우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 정은는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화나지만 남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대꾸도 잘해줄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너무 민호가 싸가지 없게 굴자 폭발한다, 화를 내고 자리를 벅차고 나오는 상상을 한다. 민호는 잘 대꾸를 해주던 정은이 갑자기 멍을 때리자 무슨 일이냐며 묻는다. 그러다가 정은은 실수로 민호에게 음료수를 흘리게 되고 민호는 화가 나서 나가버린다.

전개

정은은 소개팅이 끝나고 지친 상태로 집에 오면서 정은의 엄마와 통화를 한다. 정은의 엄마는 요즘 잘 지내냐며 정은에게 안부를 묻고 집은 잘 치우고 사냐며 나중에 가서 본다고 이야기한다. 토익성적이랑 학교성적은 잘 챙기고 있냐고 하면서 다그친다. 마지막으로 남에게 밑보이지 않게 행동하며 살라고 말하고 밥 잘 챙겨먹으라고 끊는다. 정은은 집도 깨끗하고 잘 살고 있다며 끊으며 집에 들어 왔는데 정은의 집은 전혀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 정은의 집에는 롹밴드 사진이 많이 붙여져 있다. 전화를 끊자마자 롹음악을 틀고 기타를 잡는 시늉을 하며 해드벵잉을 한다. 책상에 앉아서 공책하나를 꺼낸다. 정은은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신경 쓰였던 일을 막 적기 시작한다.

정은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위해서 화장을 수정하고 쨍하게 바른 입술색을 지우고 연한 립을 바른다. 또 집앞에 나가는건데 외출복은 이상할 것 같아 자연스러워 보이는 옷을 고민하며 열심히 고른다. 분리수거장에서 어떤 시커먼 사람(태수)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정은이 무섭고 놀래서 소리를 지른다. 정은은 너무 놀래서 아이씨하며 욕이 나올뻔한 것을 가까스로 막는다. 정은은 태수가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는 너무 놀래서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한다. 태수는 머리가 긴 남자였는데 정은을 보고 아니라고 놀라게 해서 더 죄송하다며 쓰레기 버리는 걸 좋아해서 자기가 버려준다고 쓰레기를 받아 든다. 정은은 얼떨결에 태수에게 쓰레기를 넘겨주고 갸우뚱하며 집에 다시 들어간다. 정은은 태수가 자신이 욕할뻔한걸 들었을까봐 걱정하며 집으로 향한다.

대학교 과제로 정은은 팀플을 하게 된다. 카톡 답장도 늦고 만나서도 핸드폰만 하는 팀원들에게 이거 이거 좀 해서 와달라는 이야기 밖에 못하지만 팀원들은 제대로 해오지 않는다.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정은은 결국 자기 혼자서 많은 부분을 하게 된다. 친한 동기들이 정은 앞에서 걷고 있는 걸 확인한 정은 동기들에게 가서 인사하려 한다. 동기들에게 뒤에서 말을 걸려할 때 자신의 이야기가 들린다. 동기들은 과제이야기를 하면서 안했다고 정은은 분명 해 왔을거라면서 정은한테 보여 달라하면 다 보여주고 부탁하면 뭐든 거의 다 해주니까 걱정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정은은 인사하려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선다.

위기

태수는 한번에 빨간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온다. 그러나 정은은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옷을 갈아입는다. 결국 제일 무난해보이는 옷을 입고 나와 핸드폰 빠데리가 가득한 채로 롹밴드 음악을 들으며 기분 좋게 걷는다. 정은이 동기들과 캠퍼스를 걷다가 동기가 정은한테 너는 음악도 차분한거 들을 거 같다면서 플레이리스트 좀 보여달라고 한다. 정은은 당황해서 나 지금 빠데리가 없어서 나중에 캡쳐해서 보내준다고 말하면서 앞을 보지않고 걷다가 태수와 부딪힌다. 태수와 부딪혀서 정은은 커피를 흘리게 된다. 속으로는 깜짝놀래서 화내면서 부딪힌 사람을 본다. 정은은 태수와 눈이 마주치게 되고 매우 놀라고 태수도 놀란다. 태수가 죄송하다고 하자 정은도 자신도 앞 제대로 안보고 다녀서 미안하다고 한다. 정은은 속으로 태수가 분리수거장에서 자신이 욕할뻔한 걸 들켰을까봐 걱정했는데 밝고 반갑게 대해줘서 못들은 것 같다고 생각하며 안심한다.

절정

가족과 생활이라는 교양에서 정은과 태수가 우연히 만나고 데이트 짝꿍이 된다. 정은과 태수가 데이트하기로 한 것을 계획서를 같이 쓰기로 하여 만난다. 정은은 팀플 때문에 밤새서 과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쳐있었다. 태수가 와서 왜이렇게 피곤해보이냐고 하자 정은은 팀플 때문이라고 하고 태수는 왜 팀플인데 혼자하는거 같냐며 자리에 앉는다. 태수는 무임승차자들 다 이름에서 빼라고 하고 바쁜데 다음에 하자며 정은을 배려해준다. 정은은 팀플이 더 급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태수는 나오면서 남을 위로해줬다는 사실에 뿌듯해한다.

정은이 가고 싶은 곳인 서점을 먼저 간다. 정은은 서점을 가서 열심히 책을 구경하고 태수도 구경한다. 서점데이트를 하면서 정은은 조심스럽게 태수에게 머리가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자를 생각은 없냐고 물어봤다. 태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건 상관없다고 내가 좋으면 된거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자신 모습이 좋다고 자를 생각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서점 구경을 끝내고 태수가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아지트를 알려 주겠다고 한다. 정은은 내심 기대하며 태수를 따라간다. 태수가 갑자기 멈춰 서고 돗자리를 깐다. 정은은 놀라며 뭐하는 거냐고 묻고 태수는 여기가 자기의 아지트라고 한다. 정은은 매우 당황스러워 하지만 서로 하고 싶은 걸 하나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태수의 행동을 따른다. 정은과 태수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김밥을 먹고 노래를 듣는다. 정은은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것을 의식하며 불안해하고 태수는 블루스 노래를 들으며 그늘지고 바람불고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 좋지 않냐고 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정은은 뭐하는 짓인지 구석에서 현타 온 듯이 앉아있다가 태수가 이어폰 한쪽을 건네주면서 노래가 끝내준다고 한다. 정은은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들었는데 노래도 좋고 태수가 시야에 들어왔다. 정은은 태수의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B의 모습이 살짝은 부러워보였다.

정은은 이어폰을 잘못꽂은 상태로 롹밴드 노래를 튼다/ 정은을 발견한 태수가 인사하려고 다가가자 정은의 핸드폰에서 노래소리를 듣게 된다. 태수도 롹밴드에 관심 있던 터라 노래제목과 밴드를 말하면서 인사한다, 정은은 깜짝놀라 B를 쳐다본다. 태수는 정은한테 나도 그 롹밴드 꽤 좋아한다고 롹음악 많이 좋아하냐고 묻는다. 정은은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냥 몇 번들었는데 머릿속에 맴돌아서 듣는거라며 당황한 상태로 얼버무린다. 태수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정말이냐고 하자 정은은 마음을 놓은 듯 심호흡을 크게 하고 롹음악 많이 좋아한다고 한다. 태수는 그게 뭐가 그렇게 숨길 일이냐고 당당해져서 좋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자신이 롹노래로 합주하는데 시간되면 보러오라고 한다.

고민하던 정은은 태수의 합주를 보러간다. 태수가 롹밴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신도 기분이 좋아짐을 느낀다. 정은은 태수가 자유롭고 당당하게 부르는 밴드 연주 하는것을 듣고 있으니 태수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긴머리 좋다고 할 때, 트레이닝복 입고 다닐 때의 당당함 등)과 자신을 충고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또한 정은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생각에 잠기게 된다.

결말

정은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고 또 준비를 다시하려고 화장대 앞에 앉는다. 하지만 태수의 자유로움이 머릿 속을 스쳐지나가자 그냥 고민 없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안고치고 나가기로 결심한다. 롹밴드 노래도 밖에서 흥얼거리지 않았지만 조금 흥얼거리면서 당당하게 집 밖을 나선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태수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